

원전건설의 세계화 추진

현대건설(주)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유감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정치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한 해였다.

또한 경제발전의 중책을 담당해 온 우리 기업들에게도 어려웠던 한 해로, 이러한 국내외적 시련을 극복하는 가운데 기업의 의식은 새롭게 정립되고 관련제도가 정비되는 등 기업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거듭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현대건설(주)은 원자력분야에서 다목적연구로인 하나로와 영광 3호기를 준공하여 원전기술자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영광 5·6호기 원자력발전소 시공부분을 수주하는 쾌거도 이룩하였다.

당사는 또한 현재 가동중인 한국표준형 경수로 원자력발전소인 영광 3호기와 96년 3월 준공예정인 영광 4호기의 성공적인 건설로 미국 전력전문지인 <Power Engineering>지가 선정한 「올해의 프로젝트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표준형 원전의 건설관련 전

반에 걸쳐 그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현대건설(주)은 우리나라의 가동중인 원전 10기 중 8기를 시공하였고, 최근에 수주한 영광 5·6호기를 포함하여 현재 총 4기를 시공하고 있다.

금년초에는 국내 최초로 외국업체와 공동으로 고리원자력 1호기 증기발생기 교체공사를 수주하는 등, 원자력발전소 보수기술 자립부문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세계원전시장 적극 진출

한편 세계 원전시장을 살펴보면, 최근 몇년간 미국 및 유럽에서는 경제불황으로 원전신규건설계획이 현저히 감소하는 반면, 아시아 각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수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은 석탄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경제발전이 현저한 남동부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 대책으로 원자력을 선택하였으며, 인

도네시아 및 태국 등도 원전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등 아시아는 향후 원전건설 수주의 각축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강화

따라서 현대건설(주)은 26년간의 오랜 원전건설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더욱 더 체계화·고도화함으로써 향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원전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며 대북원전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제 세계의 유수기업과 경쟁하여 기술력을 인정받고 개방화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을 갖는 일류기업으로서의 현대건설(주)은 세계화를 향한 경쟁력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세워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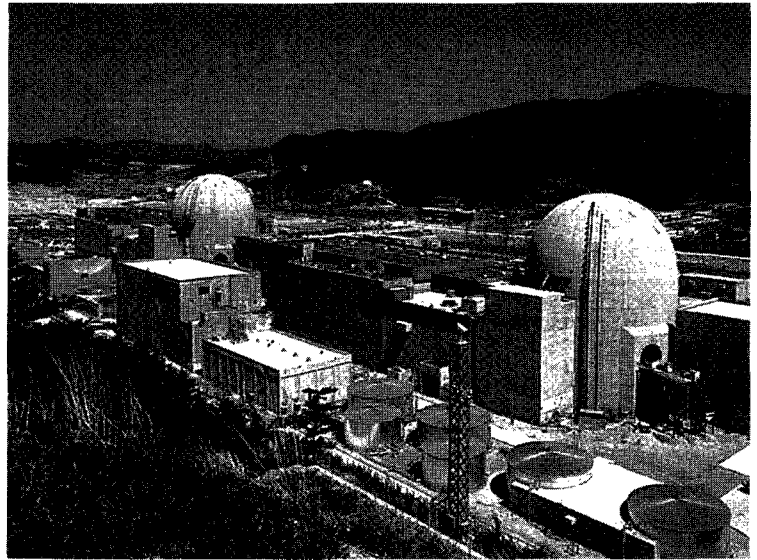
우선 새로운 기업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경쟁력있는 조직구조를 갖추어 급변하는 국내의 시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공격적인 대응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독자기술을 통한 기술자립과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기술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외 연수 및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현재 미국의 벡텔사와 기술협력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 선진기업으로 여러차례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어, 독자적인 원전시공 기술력을 구축하게 될 것임은 물론, 원전공사와 관련하여 Project Management/Construction Management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소프트웨어 도입 및 개발을 완수함으로써 국내외 원전시장의 무한 경쟁체제에 도전할 것이다.

해외원전사업 적극 참여

또한 국내 최초로 터키의 최초 원전인 「AKKUYU」 원전건설에 따른 종합기술자문(시공부문)을 맡았으며 중국(산동성 및 진산 등)의 원전사업에 Proposal을 낸 현대건설(주)는, 마케팅능력을 일층 강화하여 해외원전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진행중이다.

한편 국제경쟁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보다 폭넓고 빠른 국제정보의 수립을 위하여 이미 근거리 통신망(LAN)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장거리 통신망(WAN)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당사는, 인터넷 등의 국제정보 유통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ASME 등과 접촉하여 세계 각국의 원자력정보 동향 및 정보수집 등으로



현대건설(주)가 시공한 영광 3·4호기의 모습. 현대건설(주)는 원전시공기술을 세계로 수출하는 세계일류의 원전시공업체가 되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21세기를 대비해 가고 있다.

엄격한 품질관리

당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현장에서 품질향상과 안전을 위해 일일작업의 특기사항과 작업여건 변화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하자 발생을 줄이고 있다.

아울러 ISO 품질시스템의 확대 교육 및 지속적인 실천과 절차서에 의한 엄격한 관리로 품질향상을 꾀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의 안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협력업체 소장을 명예소장으로 임명하여 현장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을 지적

하게 하여 안전에 더욱 힘쓰며,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관련 법규 등 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후대에 안전한 원자력발전소를 물려주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원전시공기술을 세계로 수출하는 세계일류의 원전시공업체가 될 현대건설(주)는 완벽하고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국가 에너지정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인간을 존중하고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일등기업'으로 미래를 현실로 앞당겨 실현하는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